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을 위한 근거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와 제언

김 현 경¹⁾ 이 주 영^{*} 정 다 빈²⁾

최근 아동학대 및 방임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피해 아동, 가족, 그리고 가해자에게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발된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의 근거(evidence)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무선할당 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근거기반(evidence-based)’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시행되어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중재에 유의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과 중재에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미국의 주요 근거기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국내의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근거기반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장 적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 연구자와 관련자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근거기반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근거기반(evidence-based) 프로그램, 아동학대 및 방임, 효과성

1)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hyoungkim@yonsei.ac.kr

* 교신저자: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관
E-mail: jylee7694@dongduk.ac.kr

2)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학생, E-mail: dabnie811@yonsei.ac.kr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또는 형제, 자매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로 정의되며,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과 관련된 성인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보호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5).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방임을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보고 아동학대에 포함하여 칭하는 경우가 많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5). 2018년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사례는 2010년 9,199건이었으나, 점차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29,6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9). 이와 같은 국내 아동학대 및 방임의 증가 추세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몇몇 극단적인 아동학대 사례와 맞물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부모나 교사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우울과 공격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기 쉽고, 이러한 아동기 부적응은 추후 성인기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형태로 남아 장기적으로 개인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ffin & Friedrich, 2004; Infurna et al., 2016). 따라서, 아동학대 및 방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중재하는 노력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와 방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는 국내에서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크게 4가지이다.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하는 행정적 지원, 부모 상담과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한 부모를 위한 지원, 교사를 위한 지원, 그리고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이 그것이다(Kim et al., 2016).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정책이 어떠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근거기반(evidence-based)이란, "활용 가능한 최선의 연구와 임상 경험, 그리고 환자(혹은 내담자)의 특성, 문화, 및 선호 등 맥락의 결합"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idential Task Force on Evidence-Based Practice, 2006). 따라서, 근거기반 프로그램은 효능(efficacy)과 효과성(effectiveness), 보급(dissemination), 실행(implementation) 등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근거가 확보된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Lee et al., 2017). 일반적으로 특정한 예방 또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과 효과성 검증, 개선(refinement)의 과정을 거쳐 근거기반 프로그램으로 확립되고, 이러한 근거기반 프로그램의 실제 보급과 실행이 어려운 이유는 프로그램의 개발부터 보급과 실행 등의 일련의 과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Lee et al., 2017). 따라서 근거기반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거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Lee et al., 2017). 그러나 최근 국내 아동학대 및 방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근거기반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에도 아직 정부와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근거기반 프로그램

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학대나 방임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과 중재에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미국의 주요 근거기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¹⁾, 국내의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근거기반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장 적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 연구자와 관련자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근거기반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미국 아동학대 및 방임 근거기반 프로그램

프로그램 선정 방법 및 기준

먼저, 아동학대 및 방임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미국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 세 개의 주요 clearinghouse인 California Evidence-Based Clearinghouse for Child Welfare(CEBC, <https://www.cebc4cw.org/>), Blueprints(<https://www.blueprintsprograms.org/>), 그리고 CrimeSolutions(<https://www.crimesolutions.gov/>)를 활용하였다. 이들 세 가지 clearinghouse는 모두 아동 및 청소년과 가족,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근거기반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각 고유한 평가 기준에 따라 각 프로그램에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첫 번째 clearinghouse인 California Evidence-Based Clearinghouse for Child Welfare(CEBC)는 아동복지에 관한 근거기반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실천과 실생활 개입을 목표로 개발되었다(<https://www.cebc4cw.org/>). CEBC는 180여 개의 프로그램에 등급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현장전문가들이 광범위한 문헌검색 또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쉽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Ogbonnaya et al., 2018). CEBC에서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대하여 1등급(strongest research evidence)에서 5등급(a concerning practice)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https://www.cebc4cw.org/>).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프로그램 중에서 한 번 이상의 무선할당 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을 통해 비교 집단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어 1등급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과 적어도 한 번의 엄격한 무선할당 통제실험을 통해 효과성이 검증되어 2등급으로 평가된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두 번째, Blueprints는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줄이고, 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기 위해 개발된 약 90여 개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Mihalic & Elliott, 2015), 특히, 체계적인 연구방법으로 신뢰롭다고 검증된 프로그램만을 소개하여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Mihalic et al., 2001). Blueprints는 최소한 한 번의 무선할당 통제실험 또는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통하여 프로그램이 적절한 장소와 상황에

1) 본 연구에서는 미국 3개 주요 clearinghouse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 프로그램만 포함하여, 미국 이외의 국가나 라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제외되었다.

표 1. 미국 아동학대 및 방임 프로그램과 등급

프로그램명	주요 대상	목표	등급
1 Incredible Years	아동, 부모	부모의 가혹한 양육행동 감소 및 긍정적 양육방법 증진	CEBC: 1등급 Blueprints: Model Plus CrimeSolutions: Effective
2 Safe Care [®] (2)	아동, 부모	아동학대 및 방임을 가할 위험이 높은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에게 안전한 가정환경 제공 및 안정적인 부모-아동 관계 증진	CEBC: 2등급
3 System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아동, 부모, 양육자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아동의 행동, 정서 문제 감소 및 부모의 가혹한 양육행동 예방 및 중재	CEBC: 1등급 Blueprints: Model CrimeSolutions: Effective
4 Multisystemic Therapy for Child Abuse and Neglect (MST-CAN) ³⁾	아동, 부모, 가족	아동학대 및 방임 감소,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폭력적이지 않은 부모양육과 훈육 방식 증진	CEBC: 2등급 Blueprints: Model Plus

맞게 실행되었고, 적절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되었는지 등의 여러 항목을 평가하여 Model Plus Program, Model Program, 또는 Promising Program으로 등급을 부여한다(<https://www.blueprintsprograms.org/>). 본 연구에서는 Model Plus Program과 Model Program 등급을 부여받은 프로그램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CrimeSolutions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범죄(학대 및 방임, 폭력 등)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https://www.crimesolutions.gov/>). CrimeSolutions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념적인 배경, 연구 설계의 질, 결과에 대한 증거, 프로그램의 충실도(fidelity)를 바탕으로 1~5등급으로 평가를 한 후, 이를 기준으로 다시 세 수준(Effective Program, Promising Program, No Effects Program)으로 프로그램의 등급을 부여한다(Puddy & Wilkins, 2011). 본 연구에서는

CrimeSolutions에서 소개된 아동학대 및 방임 프로그램 중에서 Effective Program으로 평가된 프로그램만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clearinghouse 사이트에서 위에 기술된 평가 등급을 만족하는 프로그램 중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child abuse and neglect(아동학대 및 방임)', 'maltreatment(학대)', 'anger management(분노 관리)' 등의 단어를 검색하여 나온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표 1).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아동학대 및 방임의 피해 아동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기보다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Safe Care[®]는 Blueprints와 CrimeSolutions에서 평가되지 않았음.

3) MST-CAN은 CrimeSolutions에서 평가되지 않았음.

Incredible Years

프로그램 개요

Incredible Years는 세 개의 clearinghouse 사이트에서 효과가 상위권(CEBC: 1등급, Blueprints: Model Plus Program 그리고 CrimeSolutions: Effective Program)으로 평가된 프로그램이다. Incredible Years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부모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유능감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행동·정서상의 문제를 감소 혹은 개선하는 것이다(<http://www.incredibleyears.com/>). 이 프로그램은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개입을 목표로 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양육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 가혹한 훈육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Letarte et al., 2010). Incredible Years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영아기 부모 프로그램(0-12개월), 걸음마기 베이직 부모 프로그램(1-3세), 유아기 베이직 부모 프로그램(3-6세), 학령기 베이직 부모 프로그램(6-12세), 어드밴스 부모 프로그램(4-12세) 등 다양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Webster-Stratton & Reid, 2017). 예를 들어, Incredible Years의 유아기 베이직 부모 프로그램에서는 놀이(play) / 참여(involvement), 칭찬(praise) / 보상(rewards), 한계설정(limit setting), 그리고 훈육(discipline) 기술을 다루고, 어드밴스 부모 프로그램에서는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분노 조절(anger manage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 우울 조절(depression control), 그리고 지지를 주고받는(giving and getting support) 것과 같은 대인관계 기술을 다룬다(Webster-Stratton, 2000). 이러한 Incredible Years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및 방임의 위험이 높은 집단(예: 아동보호기관에 연루된 경험이 있는 가족에

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Webster-Stratton, 2014). Incredible Years의 기본단계 부모 프로그램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을 위해 비디오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가족들의 문화와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양육방법을 살펴보고 다른 부모의 양육방식과 훈육이 어떤지 배우게 된다. 또한, 부모의 대인관계 발달을 촉진하고, 고립감과 소외감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모의 정서조절 향상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분노와 공격성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도록 교육한다. Incredible Years는 무엇보다도 부모 프로그램을 통해 처벌이 없는 훈육을 증가시키고 아이가 잘못하더라도 가혹한 신체적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양육방식임을 강조한다(Webster-Stratton, 2000).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소개

Incredible Years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Reid 등(2001)은 저소득층의 다양한 인종(흑인, 백인, 아시아계 미국인, 히스패닉)의 가족(N=634)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행 전과 프로그램 실행 1년 후를 비교하여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Incredible Year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8~12주 동안 매주 2시간씩 양육방식과 훈육 방법, 부모와 3~5세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부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Incredible Years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들과 비교해 양육과 훈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증가하고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id et al., 2001). Letarte 등(2010)은 Incredible Years 부모 프로그램이 부모

의 양육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자아효능감과 아이들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Incredible Years 프로그램을 아동 보호 서비스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의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16주 동안 부모($N=35$)와 7~9세 아동 간의 긍정적 관계, 긍정적인 양육방식,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과 가족들과 긍정적인 소통방법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효과성 검증 결과 부모의 자아효능감과 부모들이 아이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집단($N=9$)과 사전, 사후 데이터를 비교해 본 결과, Incredible Years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부모들의 가혹한 훈육 행동이 3개월 사이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신체적 체벌 또한 감소한 반면, 긍정적이고 적절한 훈육 방법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Letarte et al., 2010). Hurlburt 등(2013)은 무선 할당 통제실험을 통하여 Head Start에 등록된 저소득층 아이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N=481$)으로 Incredible Years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지 조사하였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12~18개월 후에 Incredible Years에 참여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아이들의 행동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과 비교한 결과, Incredible Years는 부모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한 관점과 아이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Hurlburt et al., 2013).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자신의 자녀에게 학대나 방임을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부모에게서 Incredible Years 부모 프로그램이 더 효과가 컸다는 것이다. 즉, 프로그램 참여 이전 자녀에게 학대나 방임을 행사한 적이 있

는 부모가 그런 적이 없는 부모보다 가혹한 양육 행동이 더 많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긍정적인 훈육과 양육 행동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rlburt et al., 2013). 또한, Incredible Years에 참여한 부모의 아이들은 부정적으로 불평을 하는 비언어적 행동이 줄어들고 문제행동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Hurlburt et al., 201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 교육을 통한 Incredible Years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과 중재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Safe Care®

프로그램 개요

Safe Care®은 CEBC에서 2등급으로 평가된 프로그램으로(<https://www.cebc4cw.org/>)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아동보호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s)에 연루된 부모들을 위한 간단한 개입 프로그램으로 양육(caregiving), 가사관리(household management), 그리고 육아 기술(parenting skills)과 같은 구조화된 행동 기술(behavioral skills)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Chaffin et al., 2012), 특히 0~5세의 어린 아동을 두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Safe Care®는 원래 아동학대 예방과 중재를 위해 개발된 Project 12-ways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Guastafarro et al., 2012). Project 12-ways는 이미 아동학대로 아동보호기관에 연루되었거나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부모에게 12가지 양육기술(예: 자아조절, 부모-자녀 상호작용, 건강관리와 영양 등)의 교육을 목표로 하였다(Lutzker & Rice, 1984). Safe Care®는 이 12가지 중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 3가지 모듈인 아동의 건강관리

(health care), 부모-아동 상호작용, 그리고 가정 내 안전과 사고 예방(home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만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와 방임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였다(Gershater-Molko et al., 2002; 2003). Safe Care[®]는 모든 대상자들이 첫날 면대면 만남에서의 사전 조사와 위에 기술된 세 가지 모듈을 마치는데 약 24주가 소요되도록 설계되었고 일반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으로, 안전과 사고 예방, 그리고 부모 양육 기술 교육 순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의 각 요소는 5번의 세션에 걸쳐 진행된다(Gershater-Molko et al., 2002). 건강관리 모듈에서는 아이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증상과 대처방식을 교육하여 방임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위생과 영양도 함께 교육하여 병원치료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교육한다(Gershater-Molko et al., 2002). 가정 안전 모듈에서는 아동방임으로 아동보호기관에 연루되는 많은 부모들이 의도하지 않은 가정의 위험 요소에 자주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부모와 아이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위험요소들은 제거하여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한다(Gershater-Molko et al., 2002). 부모-아동 상호작용 모듈은 아동학대와 방임의 재발 위험을 줄이는 핵심 요소이며(Gershater-Molko et al., 2002), 이 모듈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영아(0~18개월)와 유아(18개월~5세)로 나누어 발달 단계별 니즈(needs)를 다루며 부모들의 역할놀이 상황을 직접 관찰하여 각 요소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평가한다(Gershater-Molko et al., 2002).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소개

지난 20여 년간 Safe Care[®]가 아동학대 및

방임 피해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재학대의 발생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Chaffin et al., 2012; Gershater-Molko et al., 2002; 2003). Gershater-Molko 등(2002)의 연구에서는 Safe Care[®] 프로그램이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과 가족에게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험이 있는 가족(N=82)을 표본으로 하여 비교집단을 동등하게 매치한 뒤(matched comparison group design)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Safe Care[®] 프로그램 참여 후 36개월 동안 아동학대나 방임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85%로 Safe Care[®]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54%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Safe Care[®]가 아동과 부모의 관계와 아이의 안전, 건강관리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Gershater-Molko et al., 2002). Gershater-Molko 등(2003)의 연구에서는 무선할당 통제실험을 통해 아동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0~5세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Safe Care[®] 프로그램의 효과가 Family Preservation 프로그램⁴⁾에 참여한 비교집단보다 우수한지 평가하였다. 그 결과, Safe Care[®]를 경험한 가족들이 비교집단보다 재학대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고 문제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4) Family Preservation 프로그램은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을 목표로 개발되어 미국 전역에서 실행된 적이 있는 가족중심(family-centered), 가정중심(home-based) 프로그램으로 90일 동안 가족 기능, 의사소통, 아동의 안전, 헬스 서비스, 금전 관리, 직업알선, 거주지 지원 등의 서비스를 각각의 가족의 요구에 맞게 지원한다(Schuerman et al., 1994).

것으로 나타났다(Gershater- Molko et al., 2003).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진행된 효과성 검증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아동보호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s)에 연루된 2175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Safe Care[®] 프로그램(부모와 유아/아이의 상호작용, 기본적인 양육 체계와 육아 일과, 가정의 안전성, 그리고 아동의 건강에 중점을 둔 모듈)과 일반적인 가정 서비스(home-based)를 받은 집단을 비교집단(service-as-usual)으로 하여 어떤 서비스가 아동학대나 방임 예방에 더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였다(Chaffin et al., 2012). 두 집단 모두 약 6개월에 걸쳐 매주 최소 한 번의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 결과, Safe Care[®]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가정 서비스(service-as-usual)를 받은 사람들보다 아동학대 및 방임의 재발률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즉, Safe Care[®] 프로그램이 다른 서비스보다 체계적인 방법과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haffin et al., 2012).

System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프로그램 개요

일반적으로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은 아동·청소년(0~16세) 그리고 그들의 부모나 양육자들이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Printz et al., 2009; Sanders, 2012; Sanders & Turner, 2017). Triple P의 목표는 가족 보호 요인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와 관련 있는 위험요인들을 줄임으로써 심각한 행동, 정서, 그리고 발달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Sanders et al., 2003). 특히, Triple P는 부모의 자기조절(self-regulation) 능력 함양

이 부모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부모들이 독립적인 문제해결자(problem-solvers)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Sanders et al., 2003). 따라서, Triple P의 핵심이 되는 긍정적인 부모 양육의 다섯 가지 원칙은 1) 안전하고 적극적인 환경(engaging environment) 보장; 2) 긍정적인 학습 환경 촉진; 3) 확신에 찬 훈육사용; 4) 합리적인 기대(expectations) 유지; 그리고 5) 부모로서 자신 돌보기를 포함하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35가지의 구체적인 양육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Printz et al., 2009). Triple-P는 출생부터 16세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5단계의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의사소통 전략(communication strategy), 2단계는 건강증진 전략(health promotion strategy)과 짧은 선택적 개입(brief selective intervention), 3단계는 좁게 초점을 둔(narrow focus) 부모 훈련, 4단계는 광범위하게 초점을 둔(broad-focus) 부모 훈련, 그리고 5단계는 집중적인 가족개입 모듈을 포함한다(Sanders & Turner, 2017). 그러나 각 가족의 고유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정도와 희망하는 유형 및 수준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Sanders & Turner, 2017). CEBC에서는 5단계 모두를 사용한 표준 버전인 System Triple P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다(<https://www.cebc4cw.org/>). System Triple P는 CEBC에서 1등급, Blueprints에서는 Promising, 그리고 CrimeSolutions에서는 Effective Program으로 평가되었다. System Triple P는 아동의 행동과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부모들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통제하여 아이들에게 가혹한 행동이나 폭언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Sanders et al., 2003). 또한, 프로그램이 진

행되는 동안, System Triple P의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부모는 자신의 양육과 훈육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anders et al., 2003).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소개

Sanders와 동료들(Sanders, 1999; Sanders et al., 2002; Prinz & Sanders, 2007)은 오랫동안 Triple P의 효과성을 검증해왔다. 특히, Triple P의 긍정적인 부모 양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Sanders 등(2004)은 2~7세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N=98)으로 Triple P의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아동보호기관(Families, Youth and Community Care Queensland)에 최소한 한 번 신고가 된 적이 있거나 아이의 행동을 다루는데 분노 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분노 수준이 높다고 측정된 부모들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Triple P를 기반으로 귀인훈련(attributional retraining)과 분노 관리를 강화한 집단 기반(group-based) 행동적 가족 프로그램(behavioral family intervention)과 일반적인 행동적 가족 프로그램(behavioral family intervention)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Triple P를 기반으로 귀인훈련(attributional retraining)과 분노 관리를 강화한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에서 아동학대 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6개월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강화된 Triple P에 참여한 부모들은 비교집단에 속한 부모들보다 아동의 행동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부정적 귀인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Sanders et al., 2004). 이밖에도 Prinz 등(2009)은 무선할당 통제실험을 이용하여 18개의 카운티에서 실시한 대규모의 실험 연구로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해 Triple P가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는지 조사하였다. 프로그램은 약 2년에 걸쳐 실행되었고 참여자들 중에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경험하고 집 밖 배치(out-of-home placement), 또는 학대로 인한 부상을 경험한 가족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 통제집단(service-as-usual)과 비교하여 Triple P를 받은 집단이 아동학대 및 방임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rinz et al., 2009). 특히, Triple P를 받은 집단이 프로그램에서 타겟으로 한 세 가지 지표인 아동학대로 입증된(substantiated) 사례, 위탁 보호와 같은 집 밖 배치(out-of-home placement), 그리고 아동학대 부상으로 인한 병원이나 응급실 방문 수 모두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rinz et al., 2009). 종합하면, Triple P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집단의 부모와 아동에게 꾸준히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검증되었다.

아동학대 및 방임을 위한 다중체계치료 (Multisystemic Therapy for Child Abuse and Neglect (MST-CAN))

프로그램 개요

아동학대 및 방임을 위한 다중체계치료 (Multisystemic Therapy for Child Abuse and Neglect(MST-CAN))는 CEBC에서 2등급을 획득하였고, Blueprints에서는 Model Plus Program으로 등급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아동학대나 방

임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에서 관리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MST-CAN의 토대가 되는 MST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20개 이상의 임상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Swenson et al., 2010). MST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는 행동 수정을 위해서는 가족이 핵심이라고 보고 가족 중심(home-based)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Swenson et al., 2010). MST-CAN은 MST의 핵심요소와 함께 학대받은 아동과 가족 치료를 위한 요소들이 보완되었다. 일반적으로 4~6개월 동안 진행되는 기본 MST 프로그램과는 달리 MST-CAN은 아동학대 및 방임을 줄이고, 부모가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공격이 없는 양육방법을 배우고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략 6~9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집중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Swenson et al., 2010). MST-CAN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들과 아동보호기관의 담당자 등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치료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하며 MST 치료자는 해당 가족을 둘러싼 사회생태학적 체계 내의 관련자들(예: 가족 구성원, 친구, 학교, 사회지지 시스템)의 장점과 요구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타겟 행동을 정하게 된다. 또한, 기본 MST와는 달리 MST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가 필요한 경우 아동과 부모에게 약물치료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풀타임 MST 슈퍼바이저가 치료자들이 위기상황을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폭력, 가족 간의 소통, 문제해결의 기능 분석, 분노 관리를 위한 인지행동치료(CBT)도 제공한다(Swenson et al., 2010).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소개

가장 먼저 진행되었던 MST-CAN의 효과성 검증 연구에서 Brunk, Henggeler와 Whelan (1987)는 무선할당 통제실험을 통해 학대 가족(N=18)과 방임 가족(N=15)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부모 교육과 MST-CAN을 비교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자기보고, 치료자 보고 그리고 관찰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결과에 의하면 MST-CAN이 일반적인 부모 교육보다 아동학대 및 방임을 약 19배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ST-CAN은 부모-자녀 관계 개선에도 일반적인 부모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runk et al., 1987). Swenson 등(2010)의 연구는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인해 아동보호기관에 연루되어 있는 아동과 그들의 부모(N=86 가족)를 MST-CAN 집단 또는 개선된 외래 치료(Enhanced Outpatient Treatment[EOT])⁵⁾집단으로 나누어 MST-CAN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16개월 동안 5가지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MST-CAN 서비스를 받은 집단이 EOT를 받은 비교집단보다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부모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방임과 관련된 양육 방식을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wenson et al., 2010). 뿐만 아니라, Schaeffer 등(2013)은 아동보호기관에 연루된 가족에게서 흔히 동시 발생하는 부모의 약물 중독과 아동학대를 치료하기 위해 MST-CAN을 강화한 프로그램인 Multisystemic Therapy-Building Stronger Families (MST-BSF)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MST-BSF에 참여한 25명의 어머니

5) EOT 집단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과 부모가 일반적으로 받는 서비스와 강화된 참여(engagement)와 부모 교육을 받았다(Swenson et al., 2010).

니와 자녀들은 비교집단보다 알코올, 약물, 그리고 우울증상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자녀에 대한 심리적 폭력 사용에서도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MST-BSF에 참여한 자녀들 또한 유의하게 감소된 불안 증세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MST-BSF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24개월 동안 비교집단의 어머니들에 비해 입증된(substantiated) 아동학대를 다시 범

표 2. 미국 아동학대 및 방임 프로그램의 주요 효과

프로그램명	저자와 연도	연구대상	프로그램 내용/절차	주요 결과
	Reid et al. (2001)	634명의 저소득층 어머니와 3-5세 자녀	8-12주 프로그램 긍정적인 양육방식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 참여 1년 후 양육과 훈육에 대한 긍정적 사고 증가; 자녀에 대한 비판적 태도 감소
Incredible Years	Letarte et al. (2010)	35명의 아동보호시스템 관리를 받는 부모와 7-9세 자녀	16주 프로그램 긍정적인 양육방식과 자녀와의 관계, 문제해결 능력과 가족과의 소통방법 교육	프로그램 참여 3개월 후 가혹한 훈육행동과 신체적 체벌 감소, 긍정적인 훈육 행동 증가
	Hurlbur et al. (2013)	481명의 Head Start에 등록된 저소득층 부모와 약 5세 자녀	8-9주 프로그램 긍정적인 양육방식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 참여 12-18개월 후 가혹한 양육행동 감소, 긍정적 양육행동 증가, 아이들의 문제행동 감소
	Gershater-Molko et al. (2002)	85명의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가족	18-20주 프로그램 자녀와의 상호작용 교육, 안전 교육, 건강 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36개월 동안 85%의 프로그램 참여집단이 아동학대나 방임 재발 방지, 아동의 건강과 안전관리 증가
Safe Care®	Gershater-Molko et al. (2003)	266명의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보호시스템 관리를 받거나 지역병원에서 아동학대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가족과 5세 자녀	24주 프로그램 건강교육, 안전교육, 양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참여 6개월 후 아동(재)학대 비율 감소, 가족간 긍정적 상호작용 증가, 문제해결 능력 증가
	Chaffin et al. (2012)	2175명의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보호시스템의 관리를 받는 부모와 자녀	약 6주 프로그램 건강교육, 안전교육, 양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참여 6년 후 아동학대 및 방임 재발을 감소

표 2. 미국 아동학대 및 방임 프로그램의 주요 효과

(계속)

프로그램명	저자와 연도	연구대상	프로그램 내용/절차	주요 결과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Sanders et al. (2004)	98명의 2-7세 자녀를 가진 부모 (아동학대로 아동보호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는 부모 포함)	16주 프로그램 귀인 훈련, 분노관리	프로그램 참여 6개월 후 아동학대 감소, 자녀 행동에 대한 부정적 귀인 감소
	Prinz et al. (2009)	미국 18개 주 중 8살 이하인 아이가 있는 85,000가족	4주 프로그램 안전 교육, 양육 방식 교육, 자기 조절 능력 교육, 부모의 공격성과 대처 방식 교육, 부부 소통과 지지하는 방법 교육	프로그램 참여 6개월 후 아동학대 및 방임 감소, 아동학대로 입중된 사례 감소, 위탁보호율 감소, 아동학대로 인한 부상으로부터 병원이나 응급실 방문횟수 감소
MST-CAN	Brunk et al. (1987)	33가족과 자녀	8주 프로그램 양육 방식 교육,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교육, 가족 구성원 서로가 소통하는 방법 교육, 부부가 소통하는 방법 교육,	프로그램 참여 2개월 후 일반적인 부모교육에 비해 아동학대 및 방임을 19배 더 감소, 자녀와의 관계 개선
	Swenson et al. (2010)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시스템의 관리를 받는 86가족	12-20주 프로그램 부모 교육, 치료사 상담, 우울감과 불안감 조절 교육	프로그램 참여 16개월 후 자녀들의 정신건강 문제, 부모의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부정적 양육방식 감소
	Schaeffer et al. (2013)	약물중독으로 인해 아동보호시스템의 관리를 받는 25명의 어머니	12-20주 프로그램 약물 사용 감소 교육,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 패턴 교육, 분노 관리,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 교육	프로그램 참여 24개월 후 부모의 알코올, 약물, 우울 증상 감소, 자녀들의 불안 증상 감소, 아동학대 재범률 감소, 위탁보호 확률 감소

할 확률이 3배나 낮았다. MST-BSF에 참여한 자녀들도 비교집단보다 집 밖 배치(out-of-home placements)로 보낸 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chaeffer et al., 201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MST-CAN과 이를 강화한 MST-BSF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아동

과 가족에게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임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위에 소개된 4개의 프로그램들은 몇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4가지 프로그램 모두 부모(주양육자)에게 아동의 발달 연령에 맞는 긍정적인 양육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고 줄이는데 핵심이라는 이론적 배경(theory of change)을 근거로 하고 있다(Lutzker & Rice, 1984; Letarte et al., 2010; Sanders et al., 2003; Swenson et al., 2010).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은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기술을 교육하고 연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들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에 걸쳐 프로그램의 개발, 효과성 검증, 그리고 보완 및 수정 등의 체계적 과정을 반복해서 거친 뒤

보급연구과 실행연구라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 과정을 통해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단기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효과가 반복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과 중재에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근거기반실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아동학대 및 방임 프로그램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국내 연구들을 찾기 위하여 Google Scholar, KISS, RISS, DBpia, KoreaScholar, 학지사·교보문고 스킨라 등 6개의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활용하여 1999년부터 2018년까지 KCI등재(후보)지를 포함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검색

표 3. 국내 아동학대 및 방임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연구	목표	효과
1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과 감소를 위한 아동·부모·교사 교육 프로그램	아동(N=997), 부모(N=228), 교사(N=206) (RCT)	Lee 등 (2001)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아동학대 및 방임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부모, 교사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및 방임 개념을 인식시키는데 효과를 보였으며 교사 프로그램이 사전, 사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2 부모인성 코칭 프로그램	아동, 부모	Do (2016)	인성과 관련된 부모의 자질 향상,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건강하게 욕구를 표출하는 방법 학습	효과검증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어린이집 영아 학대 및 방임 예방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영아(N=64), 교사(N=36) (RCT)	Kim (2017)	영아 교사와 영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증진을 통한 영아 학대 및 방임 예방	참여 교사들이 비참여 교사들보다 긍정적 상호작용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음

어는 아동학대, 방임, 아동학대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아동학대 가해자 프로그램, 아동학대 정책 개입을 사용하였다. 총 2000여개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나 대부분 사례연구에 해당하였으며, 50여개의 논문이 학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다. 이 50여 개의 논문 중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이나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3개에 불과하였다. 이 중 무선할당 통제실험을 사용한 논문은 2개였으나 국내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효과성 검증 연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선할당 통제실험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효과성 검증 연구가 실행되지는 않았으나 부모 양육기술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1개의 연구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연구를 검토하였다(표 3). 국내에서 선정된 프로그램들 역시 미국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Lee 등(2001)의 연구는 무선할당 통제실험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N=997$), 부모($N=228$), 교사($N=206$)를 대상으로 아동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에게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에 관해 교육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인 ‘아동 힘키우기 서비스(Child Empowering Service)’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아동용 프로그램은 자기보호 훈련과정으로 총 3회기 교육을 하고, 부모용 프로그램은 학대상황 극복 훈련과정으로 훈육 방법, 감정조절법, 스트레스 관리 등 총 2회기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교사용 프로그램은 학대상황 감별 훈련으로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였을 때의 대처방법 등 총 2회기로 이루어져 있

었다. 프로그램의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비교한 결과, 아동용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의 싫은 느낌 구분과 아동권리의 인식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부모용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개념을 인식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용 프로그램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개념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신고 방법과 아동복지법 내용을 인식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용 프로그램이 아동용과 부모용 프로그램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1).

Do(2016)는 부모 인성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에 대한 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건강하게 욕구를 표출하는 방법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또래관계와 성인의 멘토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부모 인성 코칭 프로그램에서는 코칭의 대화모델, 코칭의 기술, 인성 덕목과 아동학대의 이해, 코칭 교수법과 코칭대화모델의 심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와 아동·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총 10회기로 1회당 3시간씩 코칭의 대화모델, 코칭의 기술, 인성 덕목과 아동학대의 이해 등 다양한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습, 공유, 피드백 등 코칭 워크샵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자기조절과 자녀에 대한 존중감을 강화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개발 되었으나, 아직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추후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Do, 2016).

마지막으로, Kim(2017)의 ‘어린이집 영아 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 집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고 교사와 영아가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애착을 형성하여 영아가 건강한 사회 정서적 발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무선할당 통제실험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8개에서 만 1~2세 영아(N=64)와 교사(N=36)를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5가지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수준, 교사의 인성 등을 평가하였다. 사전, 사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보다 이타심, 자기조절, 의사소통 점수가 유의하게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와 교사 상호작용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의 상호작용 사후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Kim, 2017).

위와 같이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을 위해 부모, 아동, 가해자 대상으로 개발된 국내 프로그램들은 양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효과성 검증 연구로서 체계적인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가 매우 미비하며, 그나마 발표된 극소수의 연구도 효과성 검증보다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더 치우쳐져 있었다. 특히, 미국 연구들과는 대조적으로 무선할당 통제실험 설계를 적용한 장기중단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을 시도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이는 장기중단 연구를 시행하기 어려운 국내의 연구 여건을 반영하며, 이러한 연구의 부재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실제 현장 적

용을 촉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의 부재와도 관련된다.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의 사후 발견과 피해 아동의 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한된 국내 시스템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논의 및 제언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6년의 경우 전년 대비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전국 51개소에서 2018년에는 62개소로 증가하였다(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8).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의 후유증을 완화하고 학대 가해자의 재학대를 방지하여 가족 전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대 피해 아동, 학대 가해자, 그리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입원 또는 통원치료), 심리검사, 가족기능강화서비스(예: 가정지원서비스), 법률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8). 2018년 한 해 동안 학대 피해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461,891회였으며 학대 가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206,419회에 달하였다(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8). 그러나 이와 같은 광범위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의 개발, 검증, 보급과 실행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 평가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

동학대와 방임 예방 및 중재를 위한 아동,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근거기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국내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근거기반실천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선행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주요 clearinghouse에서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및 중재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4가지 근거기반 프로그램과 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국내의 경우, 문헌 조사를 통해 지난 20년 간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중 무선행당 통제실험을 적용한 연구 및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전망되는 3가지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넓은 관점에서 미국과 국내 아동학대 및 방임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주로 아동과 양육자(부모나 교사)라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논의된 미국의 4가지 근거기반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양육자(대부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과 훈육 방법이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고 줄이는데 핵심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자녀에게 폭력적이거나 가혹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긍정적인 양육기술을 증진하는데 프로그램의 초점을 두었고 이러한 접근 방법이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들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은 일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Incredible Years와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의 경우는 이미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자녀의 부정적 적응이 자리를 잡아 이차적 문제행동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

해서는 유아기부터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가정 하에(Sanders & Turner, 2017)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모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으나 아동보호기관에 연루되어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실행하여 아동학대와 방임의 재발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도 체계적인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양육자(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동학대나 방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미국의 근거기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나 방임을 예방할(primary prevention) 뿐만 아니라 감소시키는(secondary or tertiary prevention) 데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소개된 미국의 근거기반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공통점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위험군을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 연구가 실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현장 적용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아동보호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s)과 연계하여 아동보호기관에 연루되어 있는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아동학대나 방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가정환경 개선,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 등과 같이 아동학대나 방임의 위험요인들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아동학대나 방임의 위험이 높은 많은 가족과 아동들이 효과가 검증된 근거기반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Incredible Years, Safe Care[®], System Triple P, MST-CAN의 두 번째 공통점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아동,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꾸준히 프로그램

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예: Incredible Years 와 System Triple P). 프로그램이 개발된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실행한다는 것은, 보급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Generation PMTO(Weisz & Kazdin, 2017)나 다중체계치료(Weisz & Kazdin, 2017) 등과 같은 근거기반 프로그램을 국가 주도로 실행해 오고 있으며 무선할당 통제실험을 통해 꾸준히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하고 있다(Weisz & Kazdin, 2017). 특히, 노르웨이 아동 행동 발달 센터(The Norwegian Center for Child Behavioral Development)는 노르웨이 아동, 부모,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성이 검증된 근거기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보급하기 위해(Weisz & Kazdin, 2017) 국가적으로 지방자치체 수준의 구현 계획, 전문적인 치료자 모집, 프로그램 개발자와의 꾸준한 협업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끊임없이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등 프로그램의 충실도(fidelity)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Ogden et al., 2008; 2012). 이러한 사례는 보급 국가의 문화, 언어, 인종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본 연구에서 소개된 미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프로그램들이 국내에서도 성공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을 위한 근거기반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및 확산을 위해서는 어떠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과 중재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근거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미 학계에서는

아동학대나 방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뚜렷한 근거(strong evidence) 없이 실행될 경우 그 어떠한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으나(Chaffin & Friedrich, 2004), 국내의 경우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근거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나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 관리 등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Yim et al., 2013; Choi, 2018).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고,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거에 기반하여 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과 중재에 초점을 맞춘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근거기반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 제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근거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뒤따라야 하겠다.

둘째, 아동학대 및 방임 피해 아동을 위한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적인 방법론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진행된 효과성

검증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아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인프라 구축과 인력의 충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Choi, 2018). 근거기반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노르웨이의 아동 행동 발달 센터와 같은 국가 단위의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아동 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한 임상 사례들을 대상으로 무선헌당 통제실험 연구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연구자 집단과 학대 사례를 직접 관리하는 현장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산학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셋째, 미국과 국내 프로그램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본 연구에서 검토된 근거기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매우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여러 회기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국내 프로그램들은 그러한 이론적 모형(theory of change)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대부분 2~3회기로 단기적이라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의 장기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반복된 검증을 꾸준히 해온 미국 연구들과 달리 국내 연구들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일회성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 장기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방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무선헌당 통제

실험과 같은 엄격한 연구방법을 통해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고, 현장의 피드백과 꾸준한 연구를 통해 개별 대상자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장기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된 미국 프로그램들이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에서도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국내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이론적 모형과 프로그램의 구체적 구성 요인들이 국내에서도 일반화가 가능한지 여부가 프로그램의 도입에 앞서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종단 연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효과성 검증, 보급 및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국책 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runk, M. A., Henggeler, S. W., & Whelan, J. P. (1987). Comparison of Multisystemic Therapy and Parent Training in the brief treatment of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2), 171-178.
<https://doi.org/10.1037/0022-006x.55.2.171>
- The California Evidence-Based Clearinghouse for Child Welfare. (2006). *CEBC Program Registry*. CEBC. <https://www.cebc4cw.org>

- Chaffin, M., & Friedrich, B. (2004). Evidence-based treatments in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11), 1097-1113.
<https://doi.org/10.1016/j.chilyouth.2004.08.008>
- Chaffin, M., Hecht, D., Bard, D., Silovsky, J. F., & Beasley, W. H. (2012). A Statewide Trial of the SafeCare Home-based services model With Parents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Pediatrics, 129*(3), 509-515.
<https://doi.org/10.1542/peds.2011-1840d>
- Choi, J. Y. (2018). Evidence-based Treatments of traumatiz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4), 605-620.
<https://doi.org/10.15842/kjcp.2018.37.4.012>
- Do, M. H. (2016). Parent Personality Coaching Training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9*(2), 81-102
<http://db.koreascholar.com/article.aspx?code=316533>
- Gershater-Molko, R. M., Lutzker, J. R., & Wesch, D. (2002). Using recidivism data to evaluate Project SafeCare: Teaching bonding, safety, and health care skills to parents. *Child Maltreatment, 7*(3), 277-285.
<https://doi.org/10.1177/1077559502007003009>
- Gershater-Molko, R. M., Lutzker, J. R., & Wesch, D. (2003). Project SafeCare: Improving health, safety, and parenting skills in families reported for, and at-risk for child maltreatment.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6), 377-386.
<https://doi.org/10.1023/a:1026219920902>
- Guastafarro, K. M., Lutzker, J. R., Graham, M. L., Shanley, J. R., & Whitaker, D. J. (2012). SafeCare®: Historical perspective and dynamic development of an Evidence-Based Scaled-Up Model for the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Psychosocial Intervention, 21*(2), 171-180.
<https://doi.org/10.5093/in2012a17>
- Hurlburt, M. S., Nguyen, K., Reid, J., Webster-Stratton, C., & Zhang, J. (2013). Efficacy of the Incredible Years group parent program with families in Head Start who self-reported a history of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37*(8), 531-543.
<https://doi.org/10.1016/j.chiabu.2012.10.008>
- Infurna, M. R., Reichl, C., Parzer, P., Schimmenti, A., Bifulco, A., & Kaess, M. (2016).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specific childhood experiences of abuse and neglect: A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90*(15), 47-55.
<https://doi.org/10.1016/j.jad.2015.09.006>
- Kim, E. Y., Part, W. S., Lee, J. H., Lee, H., Min., Yun, J. S., Yu, J., Kang, J. Y., Kim, K. H., & Kim, M. K. (2016). *Plans to Further Safe Childcare Education Environments (II)(Final report)* (KICCE Publication NO. 16-48-01).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http://repo.kicce.re.kr/handle/2019.oak/920>
- Kim, S.-R. (2017).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program for preventing of infant abuse in child care center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8*(3), 317-340.
<https://doi.org/10.22154/jcle.18.3.14>
- Lee, G. Y., Jang, S. K., Jaekal, E. ju, Koo, H. J., & Choi, K. H. (2017). Randomized

- Controlled Trials of psychological treatment in Korea : A Systematic Analysis by journals and period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 434-447.
<https://doi.org/10.15842/kjcp.2017.36.3.012>
- Lee, H. K., Jang, H. J., & You, S. Y. (2001). Evaluation of an integrated training program for 6-7 years old children, their parents & teacher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 neglect : Focus on Child Empowering Service (CE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3(1), 23-33.
- Letarte, M.-J., Normandeau, S., & Allard, J. (2010). Effectiveness of a parent training program "Incredible Years" in a child protection service. *Child Abuse & Neglect*, 34(4), 253-261.
<https://doi.org/10.1016/j.chiabu.2009.06.003>
- Lutzker, J. R., & Rice, J. M. (1984). Project 12-ways: Measuring outcome of a large in-home service for treatment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8(4), 519-524.
[https://doi.org/10.1016/0145-2134\(84\)90034-6](https://doi.org/10.1016/0145-2134(84)90034-6)
- Mihalic, S. F., & Elliott, D. S. (2015). Evidence-based programs registry: Blueprints for healthy youth development.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48, 124-131.
<https://doi.org/10.1016/j.evalprogplan.2014.08.004>
- Mihalic, S., Hansen, D., Fagan, A., Elliott, D., & Irwin, K. (2001). Blueprints for Violence Prevention. In *Juvenile Justice Bulletin* (pp. 2-17). story, Juvenile Justice Clearinghou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5). *Annual Prevalence Rate of Child Maltreatment*. Statistics Korea.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6&conn_path=I2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9). *Annual Prevalence Rate of Child Maltreatment*. Statistics Korea.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6&conn_path=I2
-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18).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8* (Publication NO. 11-1352000-002541-01).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9882
- Ogbonnaya, I. N., Martin, J., & Walsh, C. R. (2018). Using the California Evidence-Based Clearinghouse for child welfare as a tool for teaching Evidence-based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54(S1), S31-S40.
<https://doi.org/10.1080/10437797.2018.1434434>
- Ogden, T., Bjørnebekk, G., Kjøbli, J., Patras, J., Christiansen, T., Taraldsen, K., & Tollefsen, N. (2012). Measurement of implementation components ten years after a nationwide introduction of empirically supported programs - a pilot study. *Implementation Science*, 7(49), 1-11.
<https://doi.org/10.1186/1748-5908-7-49>
- Ogden, T., Christensen, B., Sheidow, A. J., & Holth, P. (2008). Bridging the gap between

- science and practice: The effective nationwide transport of MST Programs in Norway.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Substance Abuse*, 17(3), 93-109.
<https://doi.org/10.1080/15470650802071689>
- Prinz, R. J., & Sanders, M. R. (2007). Adopting a population-level approach to parenting and family support interven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6), 739-749.
<https://doi.org/10.1016/j.cpr.2007.01.005>
- Prinz, R. J., Sanders, M. R., Shapiro, C. J., Whitaker, D. J., & Lutzker, J. R. (2009). Population-based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The U.S. Triple P System Population Trial. *Prevention Science*, 10(1), 1-12.
<https://doi.org/10.1007/s11121-009-0123-3>
- Blueprints for Healthy Youth Development. (1996). *Providing a registry of Experimentally Proven Programs*. Blueprints.
<https://www.blueprintsprograms.org/>
- Puddy, R. W., & Wilkins, N. (2011). *Understanding Evidence Part 1: Best Available Research Evidence. A Guide to the Continuum of Evidence of Effectivenes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pdf/understanding_evidence-a.pdf
- Reid, M. J., Webster-Stratton, C., & Beauchaine, T. P. (2001). Parent training in Head Start: a comparison of program response among African American, Asian American, Caucasian, and Hispanic mothers. *Prevention Science*, 2(4), 209-227.
<https://doi.org/10.1023/a:1013618309070>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19). *Reliable Research. Real Results*. CrimeSolutions.
<https://www.crimesolutions.gov/>
- Sanders, M. R. (1999).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Towards an Empirically Validated Multilevel Parenting and Family Support Strategy for the Prevention of Behavior and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2), 71-90.
<https://doi.org/10.1023/a:1021843613840>
- Sanders, M. R. (2012). Development, Evaluation, and Multinational Dissemination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8(1), 345-379.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032511-143104>
- Sanders, M. R., Cann, W., & Markie-Dadds, C. (2003).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me: a universal population-level approach to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Child Abuse Review*, 12(3), 155-171.
<https://doi.org/10.1002/car.798>
- Sanders, M. R., Pidgeon, A. M., Gravestock, F., Connors, M. D., Brown, S., & Young, R. W. (2004). Does parental attributional retraining and anger management enhance the effects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with parents at risk of child maltreatment? *Behavior Therapy*, 35(3), 513-535.
[https://doi.org/10.1016/s0005-7894\(04\)80030-3](https://doi.org/10.1016/s0005-7894(04)80030-3)
- Sanders, M. R., Turner, K. M. T., & Markie-Dadds, C. (2002).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 multilevel, evidence-based system of parenting and family support.

- Prevention Science*, 3(3), 173-189.
<https://doi.org/10.1023/a:1019942516231>
- Schaeffer, C. M., Swenson, C. C., Tuerk, E. H., & Henggeler, S. W. (2013). Comprehensive treatment for co-occurring child maltreatment and parental substance abuse: Outcomes from a 24-month pilot study of the MST-Building Stronger Families program. *Child Abuse & Neglect*, 37(8), 596-607.
<https://doi.org/10.1016/j.chiabu.2013.04.004>
- Schurman, J. R., Rzepnicki, T. L., & Littell, J. H. (1994). *Putting Families First: An Experiment in Family Preservation*. A. De Gruyter.
- Swenson, C. C., Schaeffer, C. M., Henggeler, S. W., Faldowski, R., & Mayhew, A. M. (2010). Multisystemic Therapy for child abuse and neglect: A Randomized Effectiveness Tri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4), 497-507.
<https://doi.org/10.1037/a0020324>
- The Incredible Years. (2013). *Training series for Parents, Teachers, and Children*. The Incredible Years.
<http://www.incredibleyears.com>
- Weisz, J. R., & Kazdin, A. E. (2017). *Evidence-based psychotherap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Guilford Press.
- Weisz, J. R., Kazdin, A. E., Sanders, M. R., & Turner, K. M. T. (2017). The international dissemination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In *Evidence-based psychotherap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p. 429-446). essay, The Guilford Press.
- Weisz, J. R., Kazdin, A. E., Webster-Stratton, C., & Reid, M. J. (2017). The Incredible Years Parents, Teachers, and Children Training Series: A multifaceted treatment approach for young children with conduct problems. In *Evidence-based Psychotherap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22-141). essay, The Guilford Press
- Yim, M. K., Lee, J. H., Lee, H. N., Kim, T. D., & Choi, K. H. (2013). Evidence-based practice in psychotherap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2(1), 251-270.

1차원고접수 : 2019. 08. 05.

2차원고접수 : 2020. 03. 15.

3차원고접수 : 2020. 07. 07.

최종게재결정 : 2020. 09. 04.

Evidence-based prevention programs in child abuse and neglect programs

Hyoun K. Kim¹⁾

Joo Young Lee²⁾

Dabin Jeong³⁾

¹⁾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²⁾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³⁾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about child abuse and neglect in Korea, which has prompted the government to develop various measures to prevent or reduce them. However, few of the programs can be characterized as evidence-based and it has been difficult to evaluate efficacy or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review 'evidence-base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that have been rated as effective by several clearinghouses in preventing and/or reducing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US. The present study also reviewed 3 programs that were aimed at preventing child abuse and neglect and published in Korea between 1999 to 2018. Drawn upon the discussions of these programs in the US and Korea, we mad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vidence-based programs that are aimed to prevent child abuse and neglect in Korea.

Key words : evidence-based program, child abuse and neglect, intervention effects